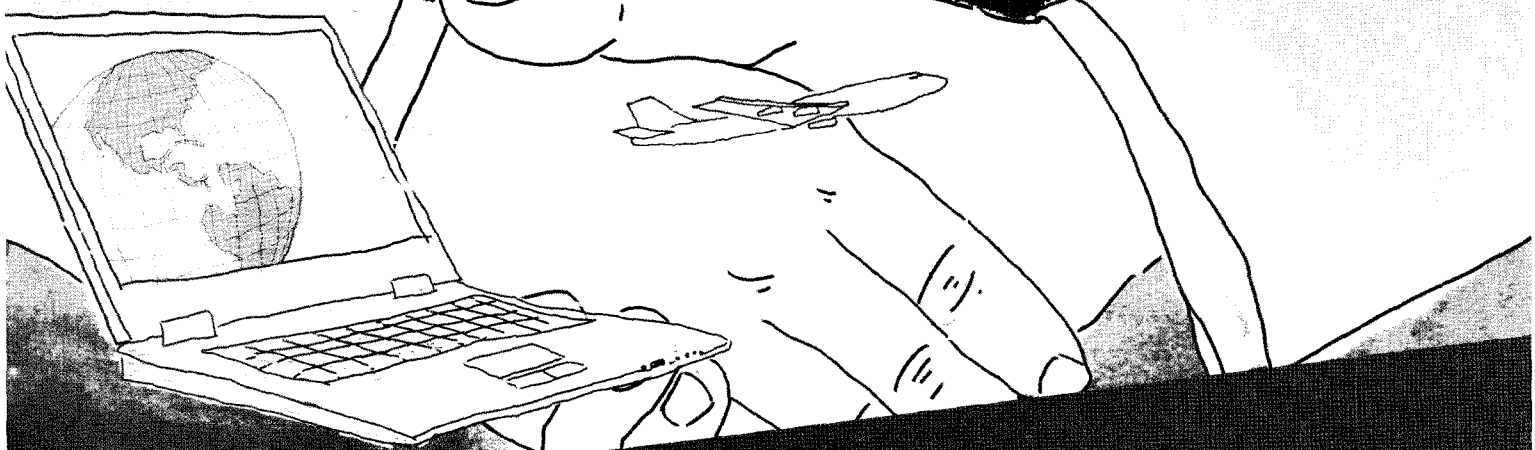


태국 ICT
하노이 - 방콕

업 컨퍼런스,



벤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라! 2009 인케스프링 중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
협회는 인케스프링 개최 전인 3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와 4월 1일 태국 방
콕에서 “하노이-방콕 통신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상담회에는 국내 10여 개 우수 통신관련 벤처기업들이 참가하였으며,
현지 사전마케팅을 통해 매칭된 현지 기업들과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100여 건의 상담이 성사되었으며 총 상담액은 약 700
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실질적인 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약 200만 달러
로 예상되고 있다. 하노이 수출상담회를 준비한 이상모 하노이지부 의장
은 “이번 상담회는 현지 업체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이 하노이 현지의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
고, 그로 인해 더욱 알찬 상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나은 성
과를 위해 전통적인 상담회 형식이 아닌 변화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
어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태 벤처기업 간 상호교류 위한 업무협약도 맺어
4월 2일 오전에는 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태국 통신산업 컨퍼런스

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주 방콕 상무관이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태
국시장 진출에 관한 주요 포인트와 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비트
컴퓨터의 법인장이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그 후 태국 방통위 산하 연구기
관인 TRIDI의 수포즈 박사의 태국 통신산업에 대한 태국 정부의 정책방
향, 태국 ICT 산업협회의 분과 회장의 태국 ICT 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의 발전방향 발표 및 태국의 통신기업인 True Move의 3G 산업에 대한
소개로 컨퍼런스가 마무리 되었다.

이 날 컨퍼런스에는 인케의 국내외 임원 및 벤처기업협회 임원, 국내 벤
처기업 30여 개사와 현지 정부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양
국 기업 및 산업 교류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태국 ICT산업협회의 주제로 열린 공식오찬에서 벤처기업협회와 태국
ICT 산업협회는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벤처기업들
의 교류 증진 및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번 MOU에서 두 기관은 △양국 ICT산업의 지식과 연구조사자료 공유
△양국 ICT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 주선 △양 기관의 대표단 파견을 통
한 기술과 업무방안 교환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행사교류 등에 합

벤처기업협회(회장 서승모)는 4월 2일과 3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케(INKE : 한민족 글로벌벤처네트워크, 의장 홍병철)의 정기 춘계 행사인 인케스프링 2009를 개최하고 관련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인케스프링 본 행사에 앞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열렸다. 3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와 4월 1일 방콕에서 연이어 하노이-방콕 통신산업 수출상담회가 진행되어 우리 벤처기업들의 수출적인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였다.

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은 "한국과 태국의 벤처기업들이 상호 간 많은 관심을 갖고 두 나라가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을 포함한 모든 벤처 분야의 발전을 주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태국 ICT 산업협회의 분라 회장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벤처기업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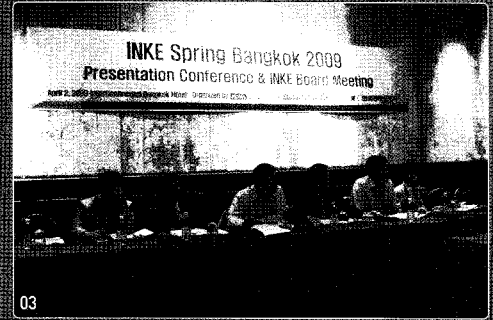
그 외에도 인케 임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제품설명회 및 인케 이사회가 열렸으며, 태국 과학 기술 분야의 종합 연구개발 허브인 방콕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여 태국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반시설에 대해 직접 둘러보고, 앞으로 교역 확대를 위해 양국 벤처기업들이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동남아 진출도 INKE가 돕습니다

홍병철 인케 의장은 "이번 행사가 한-태국 간 교류협력 증진을 다지는 뜻 깊은 행사가 됐다"며 "보다 많은 한국 벤처기업들이 한국-태국 간 자유무역협정 의정서 서명으로 태국을 중심으로 주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조석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만재 인케 방콕지부 의장은 "태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이 한국 벤처기업들이 태국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국 벤처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정보기술) 분야의 진출이 유망하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태국은 한국의 높은 IT 기술력에 대해 호감도가 높아 한국 벤처기업들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태국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해 한국에 외국인 투자한 130억 달러보다도 많았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선호지역이다. 한국 기업도 400여 개 정도 태국에 진출해 있다.

이 의장은 "태국에 연고 없이 처녀 진출하려는 한국 벤처기업들은 언제든지 방콕 인케지부의 문을 두드려 달라"며 "아이템에 맞는 적합한 현지기업을 찾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케 방콕지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상사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01. 한-태 벤처기업 간 상호교류 위한 MOU 체결
 02. 하노이 수출 상담회는 현지 기업을 찾아보는 알찬 자리였다.
 03. 인케스프링 컨퍼런스 개최 현장
 04. 태국 기업들은 한국의 높은 IT 기술력에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05. 다양한 제품설명회와 인케이사회도 성황리에 열렸다.